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김지용
희곡집

트롤 잠깐만요. 그런데 의문이 한 가지 있어요.

모험가 뭐니까?

트롤 우리는 허무도 빠진없이 당신에게 물고기를 주고 있어요.

모험가 그런 상당한 계약에 의해서요.

당신들과 나 사이의 그 무엇보다도 상당한 계약 말씀입니다.

트롤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모험가 그런데 무엇이 궁금하던 말씀이신지...

트롤 제 의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부부는 당신에게 매일 고기를 주고 있지만

왜 계속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오크 그래, 맞아.

우린 이 낚시터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낚시질을 했던 말이야.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모험가 어리석은 말들을 하시느니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낚시대들을 다시 돌려 받도록 하세요.

(오크와 트롤이 가진 낚시대를 가지가려 한다)

(모험가를 말리며) 아니, 우리 말은 그게 아니고...

모험가 우리의 거래는 양쪽의 동의 아래 성립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생트집을 잡으면 무척이나 곤란한

그건 그렇지만 우선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요.

내야 하는 물고기 수를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어머 그렇습니다.

모험가는 생각을 한다.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김지용 회국집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초판 1쇄 발행 2013년 11월 20일

지은이 김지용
펴낸이 권경우
펴낸곳 해피북미디어
등록 2009년 9월 25일 제2009-000007호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399-12
전화 051-555-9684 | 팩스 051-507-7543
전자우편 booksikko@gmail.com

©김지용, 2013
ISBN 978-89-98079-01-7 04810
978-89-963292-1-3 (세트)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
(<http://www.nl.go.kr/eci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CIP2013022491)

*본 도서는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훈유성지인사엽의
일부지원으로 발행됩니다. **부산문화재단**

해피북미디어

내 어릴 적 꿈은 시인이었다.

의사, 편사, 최고경영자, 외교관. 내가 보기에 시인보다 하등한 존재였다.

어쭙잖은 지식으로 김수영과 신경림, 황지우를 논했다.

수학문제를 푸는 것처럼 기형도, 정현중, 최승자의 시를 해부했다.

도종환과 서정운을 나약하고 시시하다고 비판했다.

대학에 와서 연극을 알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굉장히 멋져 보였다.

선배를 줄라 나도 배우를 해보았다.

77학번 선배님이 공연을 보시고 한 말씀 하셨다.

“자네 때문에 이 연극 다 망쳤네.”

물랐다. 대사는 틀리지 않고 다 쳤다. 속으로 욕을 많이 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배우로 다시 몇 번 무대에 섰다. 재미없었다.

선배가 되어 이번에는 연출을 하게 되었다.

다시 77학번 선배님이 말씀하셨다.

“명연을 탄생했다.”

졸업 후 겨울에 77학번 선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술 한잔하자고.

술자리에 갔더니 장발에 머리를 묶은 아저씨가 함께 있었다.

어느 극단 대표라고 했다.

술 권 마시고 집으로 갔다.

머칠 뒤 전화가 왔다. 머리 묶은 장발 아저씨한테서.

“안 오나? 죽을래!”

뭐지, 이젠? 갔더니 대분을 하나 톡 건네준다.

“니가 해라.”

연극계에 연출로 데뷔했다.

다시 장발 아저씨가 부산연극계에 나가라고 했다.

부산연극계는 창작 초연만 참가할 수 있다.

물었다.

“대분은요?”

대답하셨다.

“니가 써라.”

했다. 그게 내 첫 희곡이다.

희곡상을 받았다.

극작가가 되었다.

이후로 열편 가까이 단막과 장막을 썼다.

지구의 지층처럼 나의 세계는 중심으로 느리게 느리게 가라앉았다.

켜켜이 쌓인 희곡들이 나무의 나이테로 보인다.

그 나이테가 내 인생처럼 다가왔다.

내 나이, 만 서른여섯. 칠반이다. 하지만 아직도 두리번거리고 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쉼틸지 알 수가 없다.

세상은 늘 너무나 불확실하다.

김지용 극작가의 첫 번째 희곡집 출간에 붙여

부조리가 만연하고 세도는 구명투성이다.
다만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밤하늘의 북극성을 본다.

머구름 하늘 가려도, 태양이 그 빛을 지우려 해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발하고 있다.

진리란 그런 것이다.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심하였다.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으리라.

과거를 욕하지 아니하고, 모든 아버지들을 미워하지 않으리라.

모더니스트이자 로멘티스트가 되리라.

2013년 여름
김지용

“청춘(青春)의 날개” 그리고 “잠들지 않는 깃털 (plume)”
꿈이란 분명 월기왕성한 시절 우리의 힘이자, 무대의 ‘막’을 울리게 하
는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들끓었던 20대의 열정은 배우에서 연출가로, 그리고 극작가라는
수직어의 날개를 탈아, 한 발짝 한 발짝 꿈을 펼치며 좇아 달려가 했다. 어
인 10년이란 시간을 훌쩍 지나, 어느덧 희곡집 출간이란 이정표를 찍는 그
를 보노라면, 새삼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 같음을 느낀다. 같은 별을 향해 같
은 길을 함께 가던 친구이자, 경쟁자이자 든든한 우군인 그의 행보에 절투
가 날 만큼이나, 감개무량함을 느끼는 것 역시, 그가 내게 준 행운이자, 삶이
빛어내는 예술이 아닌가 싶다.

〈PLAY...〉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관통하는 그의 지성은 무대라는
놀이터 위에, 인물을 만들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한바탕 놀이로 항상 세상
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냉철한 일침으로,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배우가 매일 신체를 단련하고, 발성훈련을 해야 하듯, 작가는 펜 끝에 잉
크가 마르지 않게, 매일 끄적거리야 한다.”는 그의 지론처럼 한없이 쏟아내
는 그의 필력을 보노라면, 감히 “잠들지 않는 깃털!(La plume qui ne dort
jamais!)”이라 부르고 싶다. (Plume이란 불어로 깃털이란 뜻이지만, 과거 세
익스피어나 플리에르 시절 펜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작가들에게 있어, 능
력, 필력을 대변하는 뜻으로 활용된다.) 늘 새로운 시도와 상상력으로 우리
의 눈과 귀를 쫓기고, 깊은 고찰로 우리의 머리를 빚겨내며, 배우를 춤추고
노래하게 함이 바로 그의 깃털이 잠들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희곡집을 펴내며 · 4
축하의 글 · 7

1부 창작희곡집

그섬에서의 생존방식 · 13
오아시스 · 55
Mankind History · 109
기출소녀 우주여행기 · 149
The solar system · 183
公無渡河歌 공무도하가 · 239
메타 · 291

2부 공연대본집

오레스테이아 · 345
지금...여기! · 425
페드르 · 473
정의의 사람들 · 545

작품 해설(1) 현실의 버거움을 지탱하는 사랑의 힘_김문홍(극작평론가) · 603
작품 해설(2) 신화적 상상력의 극적 형상화_정봉석(동아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 613
작가 후기 · 626
작가 약력 · 631

배우들의 몸과 입, 연출가의 마법을 통해 생명력을 얻었을 때, 비로소 희곡은 공연이라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흔히들 “창작희곡은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완성된다.”고 말하곤 한다. 그가 이 희곡집을 통해, 전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 무대를 거쳐 완성되어졌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현재 연극을 하는, 글을 쓰는 일인으로서, 작가는 개인의 연극 인생에서, 크게는 연극계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그의 여정을 축하해마지 아니하며, 그 한 칸에 몇 마디 덧붙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준 것에 기쁨과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이 시대의 지성으로, 정의로, 연극인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고, 회자되기를 축원하며, 끝으로 김지용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과 아름다움이 그의 희곡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과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고 전달되기를 바라며, 다시금 새로운 무대 위에서 또 한 번 다른 완성된 희곡으로 생명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한다.

2013년 6월 26일 파리에서
강태욱